

국제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분석과 정책적 함의*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for International Events through the Case Studies and Its Implications for Counter-Terrorism Policy

박동균** 신익주***

〈목 차〉

I. 서 론	III. 국제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분석
II. 이론적 배경	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요 약〉

국제회의 및 국제 스포츠 행사는 개최기간 중에 테러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행사 그 자체가 실패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과 재산이 파괴되고, 궁극적으로는 개최국의 신뢰도 저하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대책 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세계 각국에서 실시한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나타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향후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의 기본 방향을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시 잘 훈련된 전문가인 안전요원 및 행사요원의 양성이 중요하다. 앞으로 자주 개최될 각종 국제행사에는 자칫 타성에 빠질 수 있는 정부 주도의 행사 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대학과 연계되어 보안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확보를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의 전략과 전술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보를 활용하여 그들보다 앞서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주도하에 테러리즘에 대한 직·간접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촉진시켜 테러리즘의 다양한 측면과 대응책 등 테러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안목을 국민들에게 길러줌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총체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뉴 테러리즘의 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사이버 테러(cyber terror)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제어: 뉴 테러리즘, 국제행사, 국제회의, 국제스포츠 행사, 사이버 테러

* 본 연구는 지난 2007년 5월 26일(토) 서울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제18회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연구책임자), 행정학박사

*** 주한미군 소방검열관(공동연구자), 체육학석사

I. 서 론

동서 냉전구조의 세계질서가 무너진 이후 분출되어 온 민족종교 영토분쟁 등 각종 분규로 인하여 테러는 국제사회의 일상적인 사건이 되었고, 세계 각국은 대테러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 한해 동안 전세계적으로 이슬람 원리주의, 민족주의, 극좌이념 등 다양한 동기에서 비롯된 1,877건의 테러가 발생하였다¹⁾.

특히 이라크에서 테러가 급증한데다가 미얀마의 양곤무역센터 폭탄테러(5.7), 영국 런던 지하철 연쇄 폭탄테러(7.7, 21), 이집트 시나이반도 휴양지 폭탄테러(7.23), 인도네시아 발리섬 연쇄폭탄 테러(10.1) 등 대형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명 피해가 급증하였다(경찰청, 2006 b : 390). 지역별로 보면, 중동지역이 1,584건으로 전체 사건의 84.5%를 차지한 가운데, 아태지역이 201건, 유럽지역이 64건, 미주지역이 18건, 아프리카 지역이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향별로는 이슬람 원리주의가 1,360건(72.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민족주의 테러가 420건(22.4%), 극좌테러가 38건(2%), 극우테러가 6건, 기타가 53건을 차지했으며, 가장 선호하는 공격수단으로는 88.9%(1,669)에 해당하는 폭발물 및 총기류로 나타났다(경찰청, 2006 b : 390).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테러의 유형과 양상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의 1,0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테러리스트, 범죄단체와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최근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 개최국들은 빈발하고 있는 국제테러,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참가인원, 시설, 행사 및 경기에 대한 안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대회 기간 중 국제테러, 안전사고 등 위기발생시 대회 자체가 실패한 대회로 평가 받는 것은 물론 개최국의 국제 신뢰도 저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주일엽, 2006 : 84). 지난 2002년 10월 12일 발생한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테러 사건으로 인도네시아의 국가이미지가 손상되었고, 이어 발생한 필리핀 폭탄 테러사건(2002. 10. 20)으로 인해 필리핀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조광래, 2003 : 139). 한국은 2011년 대구에서 세계국제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인천 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국제스포츠 행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세계화 시대에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는 각종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테러리즘²⁾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1) 아울러 국내에서도 꾸준히 테러사건이 발생해 왔으며, 2001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2005년에는 156건이 발생하여 2004년(65건) 보다 140% 증가했다(경찰청, 2006 a : 1463).

2) 테러리즘이란 비밀리에 계획되고 수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하고 관찰할 수 있는 용이한 연구대상이 아니다. 또한 기존의 이론을 검증할 수 있도록 테러리즘은 일정한 양태 및 장소, 시기에서 발생하

최근 10년간 세계 각국에서 개최한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를 분석(case study)하여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즉, 향후 동북아·세계의 중심국가로서의 각종 회의·스포츠 이벤트·국제 행사시 민간 경비·경호 업체가 경찰력이나 공공기관과의 협조를 이루어 보다 완벽한 경호경비·대테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최근 발간된 국내 학계의 연구논문과 경찰청 또는 국가정보원의 간행물, 외국의 관련 전문지, 신문기사 등의 2차 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기술적 접근방법(descriptive approach)을 채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국제행사의 개념 및 중요성

국제행사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제행사에 대한 규정으로서 1999년 9월 8일에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 제391조에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세계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제고하며,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의 국제행사의 개념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장신, 2003 : 3, 이선기, 2007 : 67). 행정자치부는 국제행사를 크게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로 구분하는 반면, 학계나 실무계에서는 국제회의라는 용어에 통상적인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조광래, 2003 : 8). 국제행사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는 통상 공인된 단체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주최하여 3개국 이상의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를 의미하기도 하며, 국가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상호정보 및 자료의 교류를 도모하며,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대화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행사에는 국제회의 이외에 학술토론 및 연구대회, 스포츠 대회, 문화예술 행사, 국제 전시회 등이 포함된다(권정훈, 2003 : 14). 현재 국내에서

지 않고, 테러의 방법과 대상에 있어서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국제행사 개최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사건을 예측하는 일은 전문기관에서조차 그 유형을 분석하기 어려운 만큼 연구에 있어서 테러리즘의 기본이론에 의한 대표적인 예방책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 밖에 없다(최윤수, 2003 : 31).

의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제회의라 함은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는 당해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해야 하며, 회의 참가자가 300인 이상으로 그 중 외국인이 100인 이상이어야 하고, 3일 이상 회의가 진행되는 회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이선기, 2007 : 71).

이와 같은 국제행사는 참가자들이 일반 관광객에 비해 장시간 체류하면서 회의 기간 중 또는 그 전후에 관광 및 쇼핑을 하므로, 대량 관광객 유치효과를 가져다주는 종합산업으로서 교통, 항공, 숙박, 유흥업, 관광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성장과 효과창출에 기여한다. 국제행사시 주최 측에서는 대테러 대책 및 경호안전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는 테러기도 분자의 입장에서는 효과 측면에서 더 이상의 호기가 없기 때문이며, 테러대상 또한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아도 되고, 귀빈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회의장과 시설은 대부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정확하게 알려지기 때문에 보다 용이하게 테러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권정훈, 2003 : 32). 국제회의 및 국제 스포츠 행사 등 국제행사에 대한 테러대응은 궁극적으로 안전관리 활동 영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첫째, 국제행사에 대한 안전확보야 말로 최대의 서비스이다. 개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유익한 국제회의나 스포츠라 하더라도 테러, 사고, 전쟁, 질병, 무질서 등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안전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다.

둘째, 안전한 행사개최는 국가간의 관계 증진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에 중대한 진전을 이룰 것이다.

셋째, 안전한 행사진행은 경제난 극복과 경제안정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경제적인 기회통합과 국민적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비계량적 유발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국제회의에 참석한 국가정상이나 보도진, 관광객들의 신변안전 보호와 질서유지를 통하여 국위선양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김두현, 2004 : 76)

2. 테러리즘의 새로운 유형 - 뉴 테러리즘의 특징

테러리즘은 1960년대 이후 또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는 정치사적인 문제이다(최진태, 2006 : 29). 테러리즘은 사회에 공포³⁾와 두려움을 주입시키기 위한 폭력의 위협, 개별적인 폭력행위, 또는 폭

3) 테러(terror)라는 용어는 원래 라틴어 ‘terrere’에서 기원하며, 공포, 공포 조성, 커다란 공포, 죽음의 심리적 상태 등을 의미하며, 오늘날의 테러리즘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최진태, 2006 : 19).

력에 의존하는 조직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테러리즘의 목적은 의도된 희생자(intended victims)의 행동에 수정이나 변화를 부과하거나 또는 희생 대상자보다 더 많고 광범위한 다른 대상자들에 대해서 본보기로 이용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테러리즘의 폭력은 실제로 표출되거나 단지 위협으로 나타나거나, 강제의 궁극점(ultimate of coercion)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국제행사에 대한 테러 대응은 안전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테러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투쟁⁴⁾의 일환으로 적대적 성향의 정치인을 암살 또는 인질을 볼모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김두현, 2005 : 9). 이들은 테러를 자행한 뒤 통상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얼굴을 알리면서 요구조건을 뚜렷이 밝히고 요인암살, 항공기·인질납치, 중요시설 점거 등 상징성을 띤 대상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대의명분을 선전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을 선택, 많은 희생자를 내기 보다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 의사소통 행위의 측면이 강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테러조직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지배하는 수직형 체제로서 정점의 지도부를 제거하면 테러조직을 무력화 할 수 있었다.

테러 공격 형태로 볼 때, 테러장비(무기)로는 저격용 총기나 폭발물 등이 사용되어 공항이나 행사장 보안검색 강화시 어느 정도 색출이 가능하였다. 또한, 생화학 무기의 사용은 1·2차 세계대전, 걸프전 등 주로 전쟁이나 대규모 분쟁지역 외에는 거의 사용이 없었으며, 테러현장에서 협상 팀·특공대의 투입으로 대부분 현장처리가 가능하였다. 테러범들의 출신성분을 보더라도 행동대원 대부분 사회적 소외계층 출신으로 기초교육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과거에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서남 아시아 등 이슬람권 국가에서 테러 행동대원들을 직접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뉴 테러리즘에서는 극단주의자들이 서방에 대한 반감, 특히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거대한 사탄 문화’와 지역패권에 대한 반대 등 추상적인 이유를 내세워 테러를 감행하는데 이는 테러집단 자신과 비호세력을 보호하고 공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요구조건 제시도 없고 정체도 밝히지 않는 소위 ‘얼굴 없는 테러’를 자행해 색출이나 근절이 더욱 곤란하게 되었다. 또한, 현대의 뉴 테러리즘은 과거와는 달리 국가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더 이상 군사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이창용, 2005 : 204). 뉴 테러리즘 하에서는 국경없는 경제·운송·통신의 세계화로 폭력행위의 주체가 다양해지고, 공격수단 또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미국 뉴욕의 9. 11. 테러 발생 이후 각 국가 마다 자국의 안전을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대테러 방위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향후 테러집단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

4) 과거 냉전시대의 테러목적은 민족해방, 국가독립, 좌익혁명, 종교적 근본주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고, 테러의 빈도도 대략 이 순서를 유지했다(서상열, 2005 : 105).

의 하나가 ‘사이버 테러’ 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이버 테러는 유비쿼터스의 과학기술을 이용한 신종테러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파괴적인 행동으로부터 물리적인 피해로 발전하는 사이버 공격’ 을 말한다(박춘식·김현수, 2004 : 55). 간단한 사례로서, 사이버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 중인 중요 인물의 의료전산기록 중에서 혈액형 한 글자만을 고의로 변경해서 살해한다든지 인공호흡기를 멈추게 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착륙하려는 비행기의 레이더에 침투하여 교란시키는 테러 유형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테러범들이 사이버 테러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는 폭탄 설치나 인질 납치 같은 종래의 방식 보다 인터넷으로 공격 대상에게 손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사마 빈 라덴’ 조직은 세계 34개국에 세포조직을 보유하여 여러 국가지역에 걸쳐 그물망 조직으로 연결된 이념 결사체로서 인터넷 비밀 사이트, 전자메일, 채팅룸 및 첨단 이동통신 등을 연락수단으로 활용하며, 중심이 다원화되어 하나의 중심을 제거해도 다른 중심이 그 역할을 대신하므로 조직의 무력화가 어려운 특징이 있어 “정보화시대의 網전쟁”(Netwar)으로도 불린다. 세계의 웹 사이트는 20억개 정도가 있으며, 특정집단이 웹 사이트를 활용하여 테러리즘을 위한 정보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9-11 테러도 알 카에다 조직원들이 웹 사이트를 활용해 테러리즘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테러리즘 예방이 한층 어려워졌다(박준석, 2006 : 60). 1995년 일본 옴진리교의 동경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⁵⁾을 비롯하여 최근 세균무기를 사용해 인명의 피해를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저렴한 비용과 엄청난 인명피해 효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의 핵무기’ 라고도 불리고 있다.

현대는 개방화된 언론에 상황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Global Communication 시대로서 지구촌 어느 한쪽에서 발생한 사건도 반대편 지구 쪽으로 신속히 전파되는데, 특히 TV는 테러사건 현장의 생생한 동영상 화면이 방영되어 인류의 공포감이 극대화된다(노호래·김창운, 2002 : 219). 미국 테러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테러장비가 없이 서류절단용 칼만으로 여객기를 납치, 빌딩에 충돌시키는 초유의 수법을 구사하며 수년에 걸친 항공기 조종술을 습득하는 등 치밀한 준비과정과 1시간 안에 모든 상황이 종료됨으로 대테러 팀의 대처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된다. 뉴 테러리즘은 사건의 대형화로 정치적 부담을 노리는 것도 특징이다. 테러 사건이 재난 이상으로 대형화됨에 따라 최고 결정권자의 결정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아지며 항공기 납치의 경우 민간 여객기 격추시 큰 정치적인 문제도 야기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마지막으로 테러행동대원들의 중산층·지능화를 들 수 있다.

미국 테러의 경우, 뉴 테러리스트들은 비교적 풍요로운 중산층 출신들로 대부분 대학

5) 옴진리교 이시하라 교주의 명령으로 일본 지하철 구내에서 사린가스를 뿌려 12명이 사망하고, 4,000여명이 부상하는 사건이다(김진혁, 2004 : 33).

재학생 이상이고, 특히 공학 또는 과학 분야 전공자들이 선호된다. 이 경우 비행기 조종이나 폭탄의 기능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임무 성공률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테러범 중 한명인 「무하마드 아타」 역시 변호사인 아버지와 대학교수인 형제들 사이에서 유복하게 자란 함부르크 대학의 도시공학과 학생이었다. 이들은 테러 실행 이전부터 각종 범죄기록을 갖고 있던 과거의 테러리스트들과는 달리 전혀 범죄경력이나 정치적 활동이 없어 경찰과 정보기관의 감시망에 좀처럼 있지 아니하며, 때로는 정신병적인 종교적·정치적 신념으로 무장하고 테러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정보원, 2002 : 17-22).

3. 선행연구의 검토

한국에서 테러에 대한 선행연구는 무수히 많다. 주로 정치학자나 경찰행정학자, 그리고 최근에 경호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경호경비학회에서도 다양한 접근방법과 주제를 갖고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그 중에서 국제행사에 대테러 정책 내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선기(2007)는 한국에서 개최한 바 있는 2005년 APEC 대회 및 2000년 ASEM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제회의 행사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 활동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회의의 안전관리 방안으로서 안전 활동에 필요한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과 사용, 안전기관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통한 인력수요의 산출, 취약시설의 철저한 점검, 정보 시스템의 확립, 안전활동 결과에 대한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연구자는 제시하였다.

또한, 조광래(2003)는 테러의 유형과 연도별·지역별 발생 현황을 제시하고, 국제스포츠 행사와 관련된 각종 테러사례와 각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 대한 대테러 방안으로서 법적 대응체제의 구축, 제도적 장치로서 테러 전담조직의 신설 및 전문가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권정훈(2003)은 국제행사시 경호안전 대책방안을 조직 및 전문인력 등에 맞추어 제시하였고, 신익주(2003)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의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테러의 유형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황우와 박대경(2005)은 부산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대테러 안전대책으로서 테러에 대한 완벽한 정보의 수집, 국내외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의 구축, 구체적인 인력·예산·장비 계획의 수립, 모의훈련 실시(FTX), 시민협조를 통한 사전 홍보활동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과 국제행사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전세계적으로 개최된 국제회의 및 국제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분석을 통하여 향후 한국에서 개최될 각종 국제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국제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분석

1. 국제 회의에 대한 대테러 사례

1) 제4차 필리핀 APEC 정상회담(1996. 11)

필리핀 APEC 개최에 관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미국, 일본 등에서 지속 제기된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해안선 및 공안요원들의 부패, 인질납치 사건의 빈발 등 사회구조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당시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이 연일 TV 생방송, APEC 행사 홍보를 통해 한건의 불미한 사건도 발생치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선박 입항, 네팔인 신분을 위장한 북한 공작원의 필리핀 잠입 첩보가 입수되어 회원국 경호요원들이 행사기간내 긴장상태의 경호작전을 구사할 수 밖에 없는 불안한 경호정세를 노출하였다. 필리핀 경호 당국은 1996년 3월부터 APEC 행사에 대비한 경호체계를 정비하고 단계적인 훈련 및 준비를 지속한 가운데 6개의 특별 팀(Task Force)을 편성 운영, 총 1만 5천여명의 경호 요원들로 하여금 특별 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행사실시중 동원된 각급 군경 단위요소간 상호 유기적 통제 및 긴밀 협조체제가 미흡, 즉각적인 경호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현장배치 공안요원들의 이완된 근무체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조치 능력은 극히 미비하였다. 요인 입국시 공항에서 숙소 이동간에는 경호상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모터 케이트 정지 상황까지 발생했고, 또한 마닐라의 협소한 도로여건에도 불구하고, APEC 전용차선제 실시로 마닐라 시내는 일반차량으로 인한 최악의 교통체증을 초래하였으며 요인경호 측면에서도 수많은 허점과 실패사례를 낳았다. 결국 제 4차 마닐라 APEC 행사는 최근 실시한 대규모 국제 정상회의 행사시 전형적인 실패사례로 낙인 되었고, 필리핀 공안당국의 업무수행 능력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전체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

2) NATO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 워싱턴 D.C(1999. 4. 23~25)

NATO 50주년 기념행사가 세계 43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어 워싱턴 D.C 역사상 최대의 국가 정상회의로 경호기관인 미 SS를 비롯한 연방 경호 유관기관들이 총력 경호체제를 구축, 참가국 국가원수들의 안전은 물론, 미국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들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는 요소가 되었다.

NATO군에 의한 유고공습으로 인해 최초 계획했던 축제 분위기 속에서의 회의 진행을

대부분 삭제(정상들의 복장도 평상복으로 바꾸었고, 각종 퍼레이드와 군용기 축하비행 등을 취소)하고 엄중한 경호환경 속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행사 기간에는 미국주도의 유고공습 및 반전 시위가 지속되었고, 특히 요인경호 최고 책임자인 “스토포드” 미 SS실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NATO 정상회담과 관련 “하루 20여 건의 위협협박이 인터넷을 통해 접수되고 있고, 장래에 백악관이 화학, 방사능 테러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취약한 경호환경을 우려한 바 있다. 미국 비밀경호국(SS) 경호 조치의 최대 주안점은 저격과 폭탄적재 차량테러 및 화학 방사능 공격에 대한 거부대책 수립으로서 행사기간 백악관 주변 연방청사 밀집 지역이 폐쇄되고 9만 여명의 연방공무원과 공립학교는 휴무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변 일대의 지하철 및 버스운행노선에 대해 무정차 통과조치 및 운행노선을 변경하도록 조치하였고, 행사장 주변은 정부 발급 비표부착자만 보행 가능토록 통제하여, 시민들의 생활권을 다소 침해하였지만 CIA를 비롯한 국가정보기관에서는 반미, 반정부 세력들의 동향에 대해서 행사기간 동안 철저한 감시체제를 수립, 다른 국제행사 보다 정밀한 경호지원 방안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국 이 행사는 악화된 경호 환경에서도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표본으로 경호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되었다(신익주, 2003).

3) 2005 APEC 정상회의 - 부산(2005. 11.12-19)

2002년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8차 APEC 정상회의에서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우리 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7월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비롯한 지원 법령 제정과 추진기구의 발족 등 장기간에 걸친 대비가 진행되어 왔다(이황우·곽대경, 2005 : 294). 이에 비해 경찰에서는 2004년 경찰청 경비국 경호과에 경찰관 2명을 배치하여 2005년 2월 총경급을 단장으로 하는 APEC 기획단이 발족되기 전까지 업무준비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5년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2005 APEC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을 포함한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대표단 약 4천명을 비롯하여 기업인과 내,외신 언론 등 총 2만 여명이 참가하였다. 『2005 APEC 정상회의』는 지구촌에 대한 끊임없는 테러위협과 NGO의 반 APEC 시위 등 온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라는 본래의 목표 달성과 함께 ‘안전한 한국’, ‘빈틈없는 치안’을 재인식시켜주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라크 파병국 주요 정상들이 함께 하고, 최초로 지방항만 도시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경호행사에 수반되는 열악한 치안환경⁶⁾ 속에서도 연 58만여명

6) 부산은 한국 남부 해안지역에 위치한 항구도시로서 테러관련 인물의 잠입이 용이하고, 지진과 해일 등의 피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정상 회의장 및 지정호텔이 밀집한 해운대는 관광지로서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고, 외국인 거주지역도 인접해 있어 테러분자 등의 은거가 용이하며, 인접한 울

의 경찰력과 기능별 활동이 조화를 이루어 총력치안을 펼쳤다.

행사기간 중 발생한 7·7 런던 테러사건은 부산 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전국의 동시테러 대비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으며, 지휘부의 대테러 현장점검을 통한 관심도 제고와 함께 전국 경찰이 함께 대응하는 총력 치안활동의 근간이 되었다. 경찰청 대테러센터 신설과 지하철 경찰대 보강 등 전담 기능의 확충과 함께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국정원, 국방부와 적극 협의, 2005년 10월부터 3단계에 걸친 군병력 지원과 의용소방대, 민간자원 봉사자 등 범국민적인 참여활동으로 테러예방에 주력하였다. 또한 인적 위협요소에 대한 면밀한 동향관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유관기관과의 모의훈련으로 시민의 경각심 고취 및 신고의식을 크게 함양시켰다(경찰청, 2005 : 1433).

2. 국제 스포츠 행사⁷⁾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

1) 제 26회 아틀랜타 올림픽 대회(1996. 7.19~8. 4)

근대 올림픽 1백주년 기념대회를 겸해 사상 최대 규모로 치루어진 제26회 아틀랜타 올림픽 행사는 역대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197개국 1만 5천여명이 선수와 40여 개국 국가정상급 요인들이 행사 개폐회식에 참석하였으며, 행사 기간중인 1996. 7. 27 올림픽 공원 폭탄테러로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도 발생함으로써 미국 공안 당국의 불명예로 기록되고 있다(조광래, 2003 : 137). 아틀랜타는 흑인이 주민(40만명)의 67%를 점유하고, 서비스산업 발달 등으로 인해 범죄발생률이 미국에 인구 25만명 이상 도시 중 2위를 기록하는 등 치안이 불안한 도시이다. 또한 아틀랜타가 소재한 조지아 주는 같은 남부지역인 오클라호마주 폭탄테러(1995. 4)를 자행했던 민병대 등 극우집단, 종교단체들의 반정부 단체에 의한 행사방해활동 및 테러 가능성이 고조된 상태였다. 그리고 사회보장 축소, 이민규제 추진에 대한 소수계층, 빈민층의 반항과 「십슨」 무죄평결(1995. 10)

산과 마산 등 상공업 도시를 중심으로 러시아·동남아 국가 등 취약국가의 선원 및 불법 체류자의 출입이 빈번하여 테러의 취약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이황우·곽대경, 2005 : 305 ; 부산광역시, 2005 : 31-32).

7) 국제 스포츠 행사는 다른 행사와는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대규모 불특정 다수의 군중이 운집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유세나 종교적 모임 등에도 군중이 운집하기는 하지만 한정된 공간인 운동장이라는 장소에 수만 여명이나 되는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국제스포츠 행사는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둘째, 세계 각국의 응원단과 기자들, 귀빈들이 모인다. 따라서, 국제스포츠 행사를 유치한 국가는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 전 세계에 홍보를 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셋째, 국제스포츠 행사에는 선수촌과 여러 경기장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경비구역이 분산되고,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치러지는 특성으로 인해서 종합적인 대테러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국가의 선수단과 응원단들의 대립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조광래, 2003 : 127-128).

이후 흑백간 인종갈등이 심화되는 등 사회불안 요인이 내재된 상태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대회에서는 대회 개막 50여일을 앞둔 시기부터 애틀랜타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미 정부 당국은 테러방지를 위한 비상체제에 본격 돌입하였으며, 조직 위측은 올림픽에 참가할 1만 5천여명의 선수와 임원, 그리고 취재팀들을 테러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 당국의 전적인 후원하에 “우산계획(Umbrella Project)”이라는 올림픽 경비계획안을 작성, 국방부(1만 4천여명), CIA, FBI(2천여명), 연방·주경찰 등 보안·공안요원이 총 동원된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 한편, 약 5천만 달러(6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대테러 첨단장비를 가동하였고, 특히 조직위는 지난 1996. 4.27 애틀랜타 인접 지역인 크로포드 시에서 반정부 무장단체의 비밀폭탄 제조사실 발견이후 테러와 관련해서는 극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당시 “조지아 공화군”이라는 민병단체는 비밀제조 폭탄을 올림픽방해목적으로 올림픽 시설물에 설치할 계획이었다고 밝힌 바 있었다. 한편, 당시 「빌리페인」 애틀랜타 올림픽 조직위원장은 회견을 통해 “올림픽 기간 중에는 인공위성을 포함한 미국내 모든 대테러 유관기관요원 및 장비가 총동원, 전쟁에 준하는 경비체제를 가동할 계획” 이라면서 “테러는 물론 사소한 소매치기 사건조차 한건 없는 올림픽을 만들겠다” 고 공언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이 공언은 지켜지지 못한 셈이 되었다(조광래, 2003 : 137). 또한, 요인 경호문제를 관장하는 미국 비밀경호국(SS)은 40여개국 참석 정상들에 대해 행사 지역내 호텔 중 경호여건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매리어트 마카스” 호텔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참석정상들에게 대략 5명 정도의 경호관을 배정, 3교대 24시간 근무를 실시하여 요인 경호와 관련해서는 한건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임무수행 능력을 과시하였으나 행사장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으로 다소 빛바랜 감이 없지 않다.

2) 제13회 방콕아시안 게임(1998.12. 6~20)

태국 방콕 일원에서 개최된 제 13회 아시안 게임은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42개국 8,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태국 국민들에게는 국가위상을 높이고 관광수입을 올려 경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었다. 국제테러 위협관련 징후나 특이한 첩보는 없었으나 태국 남부지방에 거점을 둔 회교분리주의 단체인 「파타니 연합해방기구(PULO)⁸⁾」의 활동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키스탄 등지의 과격 회교들이 잠입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다. 또한 북한도 1990년도 북경 아시안게임 이후 8년만에 30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함으로써 망명, 탈북자 발생, 선수응원단간의 충돌도 우려되었으며, 시기적으로 북한은 잠수정 침투 등 지속적인 대남 도발을 획책한 바 있어 관계당

8) PULO(Pattani United Liberation Organization)는 1947년 창설되어 남부 태국의 회교분리주의기구 가운데 가장 활동적인 조직으로 주로 폭파, 방화, 인질 등의 수법을 애용하는 단체이다.

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지리적으로도 태국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테러분자와 마약, 위폐 등 국제범죄 조직의 잠입이 용이한 취약점 외에도 국제 관광지로서 여권 탈취 등의 범죄가 우려되는 곳이기도 하였다. 선수촌 안전 및 출입통제는 경찰청 직속 특수조직인 국경수비대 경찰 800여명이 동원되었으며 「탐마삿」 종합경기장 단지내 경찰센터에 경무관급 책임자를 배치, 별도 지휘체계를 구축하였다. 선수촌은 선수단이 투숙할 뿐만 아니라 각국 주요 인사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주거구역내에는 책임구역을 설정하여 순찰조 및 고정 경비조를 혼합 운영하였으며, 각 건물 등 출입구에는 용역경비원을 배치하여 동별 투숙자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또한 입촌식 등 주요 행사시에는 주변 취약 개소에 경찰을 배치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문화행사장·선수단 서비스센터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남녀 경찰 순찰 조를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선수촌 각 건물입구에는 주간에는 1명, 야간에는 2명의 용역경비원을 배치하여 출입자격을 확인하였고 간단한 소지품 이외의 휴대품들은 식당내 반입을 금지, 물품보관소를 이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선수촌 내 취약지역에는 CCTV를 설치하여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 경찰센터의 녹화테이프 분석용 장비를 활용하여 범인을 추적, 색출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한편, 테러사건에 대비, 독일 등 외국에서 전지훈련을 받은 국경수비대 소속 특수기동대 150여명을 선수촌 주요지점에 상시 대기토록 하여 상황 발생시 긴급 출동하도록 대비 하였다.

3) 2006년 독일 월드컵 대회(2006. 6. 9 - 7. 9)

독일은 1974년 이미 제10회 서독 월드컵 대회 때 서독 적군파가 체포된 동지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기장에 로켓탄을 발사하겠다고 협박해 50여대의 장갑차, 6대의 탱크, 1,2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삼엄한 경비하에 경기를 진행했던 전례가 있다.

1960년대 말부터 반자본주의, 반미사상에 편승한 적군파(RAF), 혁명세포(RZ) 등 극좌성향의 테러조직이 1970-80년대 말까지 정치·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한 테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밀라탄테그루페 등이 여전히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고, 네오나치, 스킨헤드 등 80년대에 등장한 극우세력들이 외국인을 공격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다. 2006 독일 월드컵 대회는 대규모 행사의 상징성으로 인해서 테러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하거나 세력파시의 장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었고, 특히 미, 영, 호주, 일본 등 이슬람테러단체들이 표적으로 삼아온 주요 국가의 선수, 응원단이 다수 참가함에 따라서 알카에다 등의 표적테러 위협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테러위협이 가장 우려되는 미국 대표팀이 숙박하는 함부르크 시내 쇼펍센터에 인접한 파크 하이아트 호텔지역이 상대적으로 위협할 수 있었다. 독일내에 이슬람 국가인구가 유입(410만명)되어 ‘칼리프 국가’, ‘이슬람 해방당’, ‘하마스’ 등 이슬람단체들이 반정부 활동을 증가하고

있고, 9·11 테러 주동자들 19명 중 3명이 일정기간 독일에서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대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과격 홀리건들의 난동에 따른 피해를 들 수 있었다. 유럽 지역의 경우, 영국과 독일의 홀리건들이 97년 월드컵 예선, 유로 2000 대회 당시의 난동을 부려 대회 안전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일이 있었다. 특히, 폴란드 축구팬 30만명이 베를린 지역 야외 경기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독일-폴란드 홀리건들의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정부는 홀리건 난동에 대비해 총 1만 여명의 전세계 과격 홀리건의 독일입국을 금지하였고, 홀리건 대처임무와 기능의 “2006 월드컵 중앙정보처”의 운영, 개인정보 침이 내장된 입장권 도입, 경기장 및 주요 거리에 홀리건 데이터 베이스와 연동된 고성능 감시 카메라 설치, 홀리건 다수 국가 경기시 경기장 주류반입 제한 등을 조치하였다. 또한, 독일교통협회는 월드컵 기간 중 독일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1천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경기장 주변을 중심으로 안전사고와 교통대란을 대비하여 대책을 수립했으며, 이와 관련 철도청은 원거리 노선열차 250여편을 증편 운행하고, 교통관리 구역 내 입장권 소지자들에게 대중교통 무료이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연방 내무부 산하에 테러, 극단주의 폭력 활동의 대처를 담당하는 범 죄수사청(BKA) 국가안보국과 국경통제 및 교통안전 활동을 담당하는 연방경찰 서부지역 본부, 홀리건 정보수집 및 난동대처를 담당하는 스포츠 행사 중앙정보처(ZIS)를 운영하였다.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테러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며,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할 최대의 난제이다. 테러의 안전지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어떤 국가나 공동체 그리고 개인도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미국 관련 시설이 다수인 점 등으로 인해서 테러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이제 국제테러 단체의 위협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경제적인 역동성과 함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존재로 인해 그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고, 특히 한국은 지역적 요충지로서 향후 주변 국가와의 관계 여하에 따라 외교적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들이 테러에 대하여 공통으로 추구하는 것은 테러방지법을 제정⁹⁾하고, 대테러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테러담당 요원들을 전문화

9) 9·11 테러의 당사국인 미국은 테러리즘의 차단 및 방비에 필요한 법(USA Patriot Act, 애국법)을 2001년 10월 26일에 제정하였고, 영국도 미국의 대테러 노선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반테러법을 강화하여 테러방지 및 보안법(Anti-Terrorism Crime & Security Act)을 제정하였다(이창용, 2005 : 218).

하고,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장석현, 2006 : 89). 한국의 경우에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국제적인 테러대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하고, 대테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테러에 대한 예방, 진압, 연구, 홍보 등 테러대책을 강화¹⁰⁾해야 한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인 국제회의 및 국제 스포츠 행사는 개최기간 중에 테러나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그 자체가 실패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과 재산, 시설이 파괴되고, 궁극적으로는 개최국의 신뢰도 저하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대책 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주일엽, 2006 : 8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세계 각국에서 실시한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나타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향후 국제회의 및 스포츠행사에 대한 테러대응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시 숙박 및 행사장의 확보가 우선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잘 훈련된 전문가인 안전요원 및 행사요원의 양성이 중요하다(박동균, 2006 : 35). 앞으로 자주 개최될 각종 국제행사에는 자칫 타성에 빠질 수 있는 정부 주도의 행사 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대학과 연계되어 보안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확보를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문 민간경비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행사의 비용절감과 효율을 최대화 시키고 있다. 지난 1998년 영국의 ASEM 행사시에는 회의장 경비문제를 전직 공안요원이 운영하는 민간경비 회사에 일임하여 행사를 치른 바 있다. 이는 정부 주도의 관행과는 자칫 타성에 빠지거나 경쟁력 부족으로 과다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 영국측의 견해였다. 또한,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의 경우, 일본이 경비회사의 안전전문요원을 배치하여 경기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 반면에, 한국은 정복 차림의 경찰관들이 경기장내에 많이 들어와 위압감을 주었고, 지나치게 자세가 경직되었다는 지

독일은 9·11 테러의 사전모의기지이며, 당시 비행기 납치범들이 함부르크 세포조직의 일원으로 밝혀지자 기존의 광범위한 테러대책법에 부가하여 대테러대책법을 제정하여 2002년 1월 1일 시행하고(손동권, 2004 : 237), 이민법을 개정하였다. 캐나다는 공항 보안검색이 비교적 소홀한 아동을 이용한 테러에 대비하고, 자국을 경유한 미국 밀입국을 막기 위해 최근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를 동반해 입국하는 보호자에게 영문 증빙서류 지참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은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국외로 확대하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2001년 12월에 제정하는 한편 생물테러의 처벌을 위한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테러대책 법제 정비를 완료하였다(김두현, 2004 : 13-14).

- 10) 주일엽(2006 : 109)은 국제스포츠대회 안전 활동을 계획, 준비, 시행, 평가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계획단계에서는 참여도 제고를 위한 안전법규 강화, 안전기구의 유기적인 상호작용 보장, 안전예산의 충분한 확보 및 합리적 집행, 현실성 있는 안전계획 수립 등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 활동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준비단계에서는 안전기간 긴밀한 안전체제 구축, 안전 분야별 내실 있는 위해분석 실시, 현장적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수립, 안전장비의 과학화, 현장위주의 교육훈련 실시, 안전홍보 강화로 관심 및 협조유도 등이 요구된다. 시행단계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상황 관리,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조치 실시, 효율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자원관리 모색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평가단계에서는 공정하고 엄격한 결과분석 실시, 과학적인 자료관리가 요구된다.

적을 받았다(권정훈, 2003 : 70). 경호나 안전문제는 경험이나 노하우의 축적 없이는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염두에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는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인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들어 폭탄테러를 위시한 각종 테러들이 중동의 분쟁지역으로부터 동구권 특히 반정부 이슬람 테러리스트 등이 동남 아시아의 평화지역 그리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확산됨에 따라 그 주변국이자 북한과도 여전히 대치상태이며, 주한미군 시설이 많은 대한민국이 이러한 테러범죄의 안전지역일 수 없다. 만일 한국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은 물론이고 경찰력 및 군부대 병력의 투입으로 인해 치안이나 국가보안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비해서 각 대학의 관련학과 혹은 민간경비·경호업체를 법적·행정적으로 정책을 마련하여 유사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성격의 전문요원이나 기업의 설립이 필요하다.

셋째, 테러리스트들의 전략과 전술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보를 활용하여 그들보다 앞서 나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평상시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테러리즘에 대한 연구와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주도하에 테러리즘에 대한 직·간접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촉진시켜 테러리즘의 다양한 측면과 대응책 등 테러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안목을 국민들에게 길러줌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총체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즉, 테러가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하며, 그 요점은 테러리즘이란 이상주의가 아니라 범죄이며, 테러리스트들은 범죄자라는 것을 명백하게 부각시키는 것이다(이창용, 2005 : 221). 또한, 정부와 학회, 유관단체들은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 세미나 등 연구 활동에 따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안전장비 및 시설의 첨단과학화 및 통합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뉴 테러리즘의 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사이버 테러(cyber terror)¹¹⁾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1998년 6월, 인도가 핵 실험을 실시한 직후에 영국과 네덜란드 대학생들이 인도 핵무기 연구소의 웹 사이트에 핵무기를 상징하는 버섯구름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게재하였다. 또한, 1999년 나토의 유고 주재 중국 대사관 오폭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일부 중국인들은 백악관과 국무성을 비롯한 웹 사이트를 해킹 하였다. 이로 인해서 백악관 웹 사이트는 중국어와 영어로 된 각종 낙서들로 장식 되었고, 장시간 동안 사용불능 상태까지 이르렀다.

11) 사이버 무기를 이용한 뉴 테러리즘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해커나 컴퓨터 공학도들과 같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발생된다. 이들은 첨단정보통신을 활용하여 테러리즘을 자행하기 때문에 발생현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식적인 통계가 있을 수 없고, 암수율이 높아 드물게 존재하는 통계도 정확하지 않다(노호래·김창윤, 2002 : 219).

1999년 4월 26일, CIH 대란은 대만의 대학생이 제작한 짧은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한국에서만 30만대의 PC를 손상시켰다. PC 수리비와 데이터 복구비용만 해도 20억원 이상이 소요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그 피해액은 무려 2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NORAD(북미 방공사령부)와 우주사령부가 연대하여 세계적인 규모로 테러를 대비할 수 있는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이버 테러의 위협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웹 사이트의 상당수가 보안조치에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수백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유명 포털 사이트도 보안조치에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제 한국은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대형 국제행사를 주최한 경험이 있다. 또한 앞으로 2011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등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준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테러의 목표물이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에 대비한다면 테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경찰청(2006). 『한국경찰사』.
- _____(2006). 『경찰백서』.
- 권정훈(2003). 국제행사시 경호안전 대책방안, 『용인대학교 경호학석사 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국가정보원(2001). 『뉴테러리즘의 특징과 외국의 대테러 강화 동향』.
- 국가정보원(2002). 『테러방지법 추진배경』.
- 김두현(2002). 최첨단무기테러에 대응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안전대책, 『경호경비연구』 제 5호, 한국경호경비학회.
- _____(2004). 국제테러의 양상과 테러발생시 위기관리체제, 『제13회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한국경호경비학회.
- _____(2005). 최근 국제테러의 양상에 대비한 한국 테러예방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0호, 한국경찰학회.
- 김장신(2003). 『컨벤션 기획 및 실무』, (주) 틱스 원.
- 김진혁(2004). 국내외 테러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8호, 한국경찰학회.
- 노호래·김창윤(2002). 뉴 테러리즘의 특징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호, 한국민간경비학회.
- 박동균(2006). 상주MBC 가요콘서트 사례를 통해 본 혼잡경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지방자치연구』 16호, 대한지방자치학회.
- 박준석(2006). 『뉴테러리즘개론』, 백산출판사.
- _____(2007). 우리 나라의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 시큐리티의 역할증대 방안, 『제18회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경호경비학회.
- 박춘식·김현수 역(2004). 『사이버 테러』, 진한도서.
- 신익주(2003). 테러의 유형과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2002년 한일월드컵 대회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손동권(2004). 독일의 테러대책법과 활동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부산광역시(2005). 『200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준비상황』.
- 서상열(2005). 국제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경호경비연구』 제9호, 한국경호경비학회.
- 이선기(2007). 국제회의 행사의 안전활동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호, 한국공안행정학회.

이황우·곽대경(2005). 부산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대테러·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호, 한국공안행정학회.

이창용(2005).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한국형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지방정부연구』 9권 2호, 한국지방정부학회.

장석현(2006). 중요 국가시설의 대테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호, 한국민간경비학회.

조광래(2003). 국제스포츠행사의 테러행위 대책, 『경호경비연구』 제6호, 한국경호경비학회.

주일엽(2006). 국제스포츠대회 안전활동에 대한 델파이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호, 한국공안행정학회.

최윤수(2003). 국제행사 개최시 테러리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호, 한국민간경비학회.

최진태(2006).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대영문화사.

Benjamin Netanyahu(1986), Defining Terrorism: How The West Can Win?, New York: Farrar.

David F Forte(1986), Terror and Terorism : There is Difference. 13 Ohio Northern University Law Review.

Edward A. Lynch(1987), International Terrorism: The Search for a Policy“. Terrorism, Vol. 9.

Abstract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for International Events through the Case Studies and Its implications for Counter-Terrorism Policy.

Park, Dong-Kyun · Shin, Ik-Chu

The numerous definition of terrorism is viewed as the use of force or violence by individual or group that is directed toward civilian populations and intended to instill fear as a means of coercing individuals or groups to change their political or social positions. Recently, the paradigm of terror has been developed as new terrorism motivated by 9. 11 terror in 2001.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study of recent counter-terrorism of international events and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is split into four chapters. Chapter I is the introduction part. Chapter II introduces the reader to new terrorism theory, and Chapter III deals with the case study of the international counter-terrorism policy around the world, Chapter IV deals with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case study.

The greater the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advantages opening large international ceremonies, the larger the probability of being targets for terrorists and criminals. As terrorism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 the security problems at international ceremonies in Korea, rising country as political essence in Asian-Pacific region, become very important. With experienced know-hows against terror and preparations for security,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must promote the private security companies filling up vacancies of police and official security system and develop international ceremonies, rising high valuable industries in 21st century, with diplomatic efforts.

International major events is the largest event related events with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such large-scale events should be a comprehensive counterplan in the light of safety check for the location of a hazard and safety check of facilities in and out, attendance on athlete and visitor and escort of VIPs.

Key Word: New terrorism, Cyber terror, International sports event, International conference, International major event